

2008 새해설계 ⑨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한동업

포천 전통예술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정책 필요

청소년 교육에 투자하여 미래 사회 지도자 육성해야

2005년4월 창립한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동업(사진)지부장은 "포천시에는 반월아트홀이 있는 것만으로도 활동 할만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회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는 이차 포천 무용협회(사진)지부장은 "포천시에는 반월아트홀이 있는 것만으로도 활동 할만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회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는 이차 포천 무용협회(사진)지부장은 "포천시에는 반월아트홀이 있는 것만으로도 활동 할만한 곳"이라고 밝혔다.

항상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천시의 자랑거리인 포천메나리와 풀피리 공연이 상설로 마련돼 항상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지부장은 또 참수면 오거리 농악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세워 포천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더 잊혀지고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전통음악을 복원해 내야 한다. 바로 참수면 오거리 내려오는 농악이다. 고졸할 분이 두 분이 살아 계실 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 포천일고 학생들에게 포천메나리를 전수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받게 했으며 톨타리마을 동계세우기도 했

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

포천 무용협회가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사업은 무용과 사물놀이, 민속놀이 등의 과목이며 현재 추진중인 학교는 포천일고(사물놀이, 무용), 포천중학교(사물놀이), 포천초등학교(무용), 왕방초등학교(무용) 등이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육에 나서고 있는데 포천동, 선단동, 영중면, 화현면,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물놀이, 무용 등을 교육하고 있다.

주요 공연계획에 대해 자체 정기공연과 늘푸른 어린이무용단 공연, 협회 무용단 수련 선풍무용단과 교류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국무용제는 올해 성실하게 준비하여 내년에 도전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지부장은 청소년들에게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언어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한 지부장은 포천시가 문화에



술을 바라보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고 지원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지원의 경우, 사업확인을 위해 나온 모니터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반면, 실제 지원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영중면, 화현면,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물놀이, 무용 등을 교육하고 있다.

주요 공연계획에 대해 자체 정기공연과 늘푸른 어린이무용단 공연, 협회 무용단 수련 선풍무용단과 교류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국무용제는 올해 성실하게 준비하여 내년에 도전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지부장은 청소년들에게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언어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한 지부장은 포천시가 문화에

韓國의 선비정신 · 98

베푼 자에게 보답이 있다



리효준 한국한시협회 포천시회장

유희춘이 젊었을 때 성균관 관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김인후(金麟厚)는 성균관 유생이었다. 훗날 김인후는 과거에 급제한 후 홍문관 박사가 되었는데 비록 높은 요직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이항, 기대승 등과 함께 대학자로 인정받았다.

김인후가 성균관 유생이 되었을 때 정국에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그때 그도 전염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였다. 하지만 다른 유생들은 모두 겁을 먹고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희춘은 그의 사망됨을 애석히 여겨 자기 집에 얻어다 놓고 밤낮으로 돌보아 마침내 병을 낫게 하였다.

김인후는 이를 늘 감사히 여겼다. 훗날 유희춘은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종성(鍾城)으로 발각되어 옥중에 처하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한바탕인 자식이 매우 어리석었다.

유희춘이 자식이 어리석어 감차 살아갈 방법을 걱정하자 김인후가 말하였다.

"그대는 내가 죽을병에 걸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했을 때

유희춘(柳希春) 1513년(중종 8)~1577년(선조 10).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이다. 1538년(중종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수찬, 정언 등을 지냈다. 1546년(명종 1) 을사사화 때 김광준(金光準), 임백령(林百齡) 등이 윤원형 일파에 가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함경도 종성에 안치되었다. 그곳에서 19년간을 보내면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1565년 충청도 은진으로 옮겨졌다가 선조가 즉위하자 석방되었다.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부제학·예조참판·공조참판·이조참판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경전에 널리 통달하고, 제자(諸子)와 역사에도 능하였다. 성품이 활달한 유희춘은 가산을 몰보지 않았고, 옷과 버선도 때묻고 해져도 부인이 새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꾸밈 줄을 몰랐다. 방에는 책을 펴놓은 책상 외에는 비록 먼지와 때가 끼어 있어도 쓸고 닦지 않았다.

예/술/칼/럼

선물의 알레르기

선물은 두 가지 이유로 가담이 필연적으로 삼존한다. 하나는 버리고 싶은 것과 또 하나는 간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한편 마음으로 챙기는 무형의 선물이 있는가 하면 상품으로 주는 유형의 선물이 있다. 두 방법 모두가 서로 감지하며 때로는 울안에 감히는 것이 선물이 가지는 무서운 칼과 방패다.

선물은 도전과 방패다. 늘 품앗이처럼 부딪히 작용한다. 세상은 결코 지식의 노하어나 정보를 선물로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의 피리를 똑 잘라 주는 법도 없다. 선물은 분수를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묵시적 바람은 화살보다 구제적 과녁을 표적으로 할 때는 무엇보다도 무서운 울무다.

살다보면 선물이 뇌물이 되어 사람의 몸 속에 바이러스처럼 우연히 침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물이라는 바이러스는 치료가 대단히 까다롭다.

그래서 사람은 선물이 뇌물이 되면 받으면 그 안에 감히려 하지 않고 크거나 작거나 생각의 굴렁쇠를 돌리거나 노래를 할 줄 아는 아주 영악한 판단과 기술로 자신의 운동장을 열심히 밟는다. 그럴 때 인간은 자본적 변명의 묘안으로 상품이건 종이돈이건 간에 하늘에다 꽃을 심고 내비를 부른다.

때로는 선물처럼 상쾌한 간식

은 없다. 또한 그 간식처럼 즐거운 포만감도 없다. 이처럼 선물은 수태를 끌거나 삼킴을 할 때 밥을 식혀주는 한 사람의 막걸리 한 잔의 사이드 같은 인스텐트식품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평소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면 그 선물은 건강보조식품이 되며 한편 관계가 악화되면 그 선물은 발가락의 티눈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선물의 의미는 남산의 불꽃놀이여도 안 되며 검은 양복 주머니의 코사지여도 안 된다. 선물은 입가의 미소로 하는 감사의 두 마디로 족하한다. 마음으로 켜는 선물의 전등이아말로 막힌 세상의 초록불이며 과속으로 질주하는 세상의 브레이크페달이다. 그래서 무마는 사회의 냉수 한 잔이 더 곱라운 것이다.

하늘의 기러기 때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따뜻한 협동과 질서로 푸른 창공을 따 먹고 잘도 살아간다. 소의 등을 훔쳐 먹도 사는 쇠파라 역시 선물 없이도 굶주리지 않는다. 한탄강의 은어가 낚시 밥을 무는 것도 한낱 노동의 일일일 뿐 선물로는 생각지 않는다. 의도적 불순한 선물은 옹매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매듭을 짓는 것이다. 가슴으로 꺾어주는 선물은 인정어린 꽃다발이지만 목적이 담긴 선물은 목구멍의 가시다. 장도리는 뜻을 빼지만 고깃덩이를 포장한 선물문지는 가슴에

못을 박는다. 너러 책으로 하는 선물은 가을날의 연서 같지만 지나친 사랑발림의 선물은 이를 상하게 하고, 유행하는 옷의 화려한 선물은 옳은 발걸음을 질림발리로 만든다.

소박하고 조건 없는 선물은 꿈을 갖게 하며 감사와 고마움의 작은 선물은 인간관계를 화목하게도 한다. 비겁한 선물은 삶의 가운데로 던져진 주사위 운중에 반칙만을 유도할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나눔과 희생이며 봉사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 기쁨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받아서 실기가 몹시 불편할 때도 있다. 기쁜 선물은 옛 친구처럼 다가가 손을 잡지만 불편한 선물은 포장이 먼저 어깨에 내리 앉는다. 어떤 날의 선물 보다는 맑은 아침에 까치를 데리고 안부를 묻는 한 통의 편지가 훨씬 값지다.

배달하는 선물보다는 들고 가는 무물이 더 인간적이다. 그래서 선물은 인간이 행하는 부러진 양심의 예술이자 하늘이 인간에게 일러준 가장 흥미 있는 대화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새로운 뮤지컬의 성공,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MGM)>

1940년대 뮤지컬의 새로운 시도는 <캐빈 인 더 스카이(Cabin In the Sky, 1943, MGM)>와 <스토미 웨더(Stormy Weather, 1943, 20th century-Fox)> 그리고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 1945 MGM)>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민심과 이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지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이 요구되어졌고 뮤지컬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적어도 할리우드 뮤지컬에서는 실패에 그쳐 작품성과 흥행의 실패로 빛을 잃었다. 단지 멜로적이고 전형홍보용 뮤지컬들과는 전혀 다른 시도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어서 새로운 뮤지컬의 명작들을 탄생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이 다소 초현실주의적이며 아브트적인 뮤지컬을 지향한 실험적 작품이었다면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1945, MGM)>는 파격적이지만 당시의 대중적인 코드를 잘 살린 뮤지컬이었다. 뮤지컬의 타이틀이자 메인곡으로 사용된 '앵커스 어웨이'는 1906년에 작곡된 닷을 울리라는 미국 해군의 노래였다. 축구경기의 행진곡으로 작곡된 이 노래는 그 후 가사가 바뀌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불려졌는데 MGM은 이 노래의 유명세에 기대를 걸고 해군을 소재로 마지못해 모험을 강행했다. 결국 <앵커스 어웨이>는 해군을 등장시켜 성공을 거둔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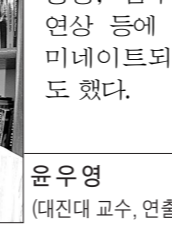
적인 진 켈리 스타일의 뮤지컬로 자리잡으며 이 소재는 4년 후 1940년대 뮤지컬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온 더 타운(On the Town, 1949, MGM)>으로 완성되었다. 유명한 뮤지컬 배우 진 켈리(Gene Kelly, 1912~1996)가 우리에겐 가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1915~1998)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낳았다. 진 켈리는 할리우드로 오기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잘 알려진 뮤지컬 배우였다. 1942년 <포미 언 마이 갈>로 영화계에 데뷔하며 할리우드의 촉망받는 신예로 떠올랐고 프랭크 시나트라는 먼저 가수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 둘의 만남은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 특히 프랭크 시나트라는 마피아와의 연관설로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데뷔 초창기부터 마피아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소 어색한 연기력에 주역을 맡은 것이 마피아의 도움이었다는 루머도 나왔다. 그 후 그의 연기력의 발전과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성공담은 쟁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대부(God Father, 1972)>의 소재(극중 배역명: Johnny Fontane)가 되기도 했다.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는 1945년에 만든 뮤지컬 코미디로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최초의 뮤지컬 영화로 기록되며 이듬해 인기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Tom and Jerry)>의 제리가 등장해서 진 켈리(Gene Kelly)

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롯은 일면적인 뮤지컬 코미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군이 4일 동안 육지에 정박해 있을 때 두 병사가 음악과 노래를 가지고 할리우드로 가 우연히 아심한 젊은 여가수를 만나 MGM영화사에 오디션 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진 켈리가 <톰과 제리>의 생쥐인 제리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당시에 기발한 발상으로 파격적인 장면이었으며 잠시 춤을 추는 중간에 있었으며 톰과 제리로 등장해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톰과 제리가 영화배역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디즈니의 유명한 오리 캐릭터인 도날드 덕(Donald Duck)을 출연시키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디즈니가 안개 된 빛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외부에 출연시킬 수가 없어 톰과 제리로 전격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이 영화는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노래(I Fall in Love Too Easily)가 감미롭게 펼쳐지는 가운데 야외공연장인 할리우드 볼(Hollywood Bowl)에서 공연되는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헝가리안 랍소디(Hungarian Rhapsody No.2)와 차이코프스키(Peter Tchaikovsky)의 '피아노 협주곡 1번(Piano Concerto No.1)' 공연도 기념할 만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진 켈리의 판타고 스타일의 댄스루틴

장면은 '라 콤파르시타(La Comparsita)' 음악에 실려 영화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파워풀한 장면으로 연출되었다.

<캐빈 인 더 스카이(Cabin In the Sky)>와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의 연이은 실패와 재정적 손실은 MGM 영화사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기존의 대중적인 사랑이야기를 버리고 뮤지컬만을 만들어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느냐 한 번 더 모험을 감행하느냐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은 구경하기 어려운 스튜디오내의 탈버그 빌딩(Thalberg Building), 야외 세트장, 구내식당, 그리고 방음 스튜디오 등 관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장소들을 과감하게 영상에 담아 박스오피스를 겨냥했다. 결과는 물론 성공이었다. 물론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아카데미 작품상, 촬영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윤우엽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2)

악동(惡童)의 어린시절

포천의 신음통을 옛날에는 '장거리'라고 하였으며 '새장터'라고 하였다. 왕방산 기슭 호병동은 '호병골'이라고 하였는데 병 길에 속 들어간 마을이라는 뜻이었다. 중국의 옛 말에 '서원동류(西源東流)'라는 물은 풍물도 좋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서쪽에서 발원(發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매우 질(質)이 좋고 맑으며 아무리 오물 같아도 그 물의 성분이 양질(良質)이란 말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다리 실개천'이나 '호병골 냇물'이 서원동류(西源東流)에 해당되는 매우 좋은 냇물이었다.

장거리 아이들은 물론 호병골 아이들의 1940년대 생활은 매우

단조로우면서도 악동(惡童)놀이패가 많았다. 호병골 냇가에 독방에 다 칠망으로 물을 담아 방죽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풀이나 도끼를 가지고 나타나 독방 쇠철망의 철사를 절단하여 가지고 쓸매를 만들기도 했으며 외발 스케이트를 만들어 얼음치기기를 하였다.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독방 방축공사를 해놓으면 아이들은 독방 쇠철망 철사를 잘라 스케이트나 쓸매를 만드는 일을 매년 계속하였다. 그래서 여름 잠마절이면 호병골 개울둑이 파손되어 새장터까지 큰 물이 흘러 집이 떠 내려갈 뻔한 일이 여러 해 계속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포천초등학교 교사 뒷산은 안동김씨 종산(宗山)

인데 새장터, 장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나무를 쪼어 놀기도 하고 칩뿌리로 캐어 먹는 바람에 매년 수천주의 잣나무를 식목하여도 붉은 대머리산을 면키 어려웠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벌거숭이 포천초등학교 뒷산에서 무너진 토사(土砂)가 호병골 개울과 한네개울로 흘러 들어 신음(새장터, 장거리)은 진흙탕이 되고 물난리를 겪는 고통을 면치 못하였다.

봄에는 읍내 사람들이 학교 뒷산에 올라가 모두 식목을 하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올라가 나무를 쪼고 놀아 모래사대를 쪼고 호병골 개울 둑이 터지는 흉수 난리를 겪는 수년이 되풀이 되었다.

그후, 이종근 면장님이 6군단장 백인협 장군의 대민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호병골 냇가 독방공사도 튼튼히 하고 목욕탕(공중면사무소 직영)도 만들었으나 그 효과는 어땠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요즈음 1940년대의 어린 시절을 내 고향 신음에서 살던 70대의 노년들이 모이면 어린 시절 호병골 독방 쇠철망을 절단하여 쓸매를 만들어 제방을 파손케한 이야기와 포천초등학교 뒷산의 식목한 나무를 쪼고 칩뿌리를 캐내어 사태가 나고 큰 물난리를 겪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어린시절의 추억은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시절에는 무심코 했던 일들이 원인이 되어 마을의 재앙으로 이어졌던 이야기는 오랫동안 남아 늙은 노동(老童)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 고향 포천의 호병골 개울이 나 한네개울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면 어떨까? 서울의 청계천 같이 말이다.(편한 소리.....)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新春(新春)



박동규 영북노인대학장

氣清日暖節和時(기청일난절화시) 水滿湖農夫放歌(수만호농부방가) 기상 맑고 해 따스하니 온화한 계절인데 호수에 물이 가득하니 농부 노래 부르네

遠出浮嵐徐沓葉(원수부람서활엽) 近林疎木漸萋枝(근림소목점둔지) 먼산 마루에 이리저리 아물거리고 서서히 잎이 피고 가까운 숲 선나무까지 색이 점차 피겠지

百花即發牛耕田(백화즉발우경전) 萬物蘇生魚泳池(만물소생어영지) 백화는 곧 피고 농부는 소로 밭갈이 하고 만물이 소생하면 연못 고기는 헤엄쳐졌지

嫁娶佳期咸祝賀(가취기합축하) 招賓酒肴備欄廡(초빈주肴비경치) 가취하는 좋은때니 모두가 축하하고 손님 초청해 주호 갖추어 술잔 기울이세

·嵐(람) : 이리저리 ·疎木(소목) : 성긴나무 ·萋(둔) : 나무색이나 ·廡(치) : 술잔 ·嫁娶(가취) : 시집가고 장가감